

since 1986

SUNBO FAMILY

2012년 사업계획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2년 7월 15일

vol.102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우리 회사 제 26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열려

[위대한 선보인의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제3창업”을 성공으로 승화시켜야]



지난 6월 29일 우리 회사 제 26주년 창립 기념일 행사가 옥상 교육장에서 열렸다.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강수 고문님의 강평, 우수사원 시상식, 최금식 대표이사 창립 기념사, 10대 중점 추진사항 낭독, 기념 케이크 절단 순으로 진행된 이번 창립기념일 행사는 창립 26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인 동시에 날로 격화되는 조선 산업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제3의 창업”을 선언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26년이라는 세월동안 무수히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선보가족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라며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보가족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입니다. 무에서 유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선보가족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입니다. 신년화두 “귀어초심”으로 되돌아가 위대한 선보인의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제3창업”을 성공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 하나 되어 힘찬 항해를 다시 시작합니다.”라며 선보와 선보가족의 미래를 위해 전 직원이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첫째-명품 모듈을 생산, 둘째-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셋째-무재해 작업장 실현, 기존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계/생산 오작 및 A/S Zero화, 넷째-사업 다각화’라는 세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경영진의 축하케익 절단식과 함께 전 직원이 회사의 발전을 결의하며 이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기념식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호강 레프팅은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26주년 창립기념 포상자 명단*

선보공업	선보유니텍	선보하이텍	협력사상	대외특별상
1공장 사원 한승진 우수사원때	선천공장 대리 정성화 우수사원때	군산공장 사원 손세미 우수사원때	명진ENG 사원 정지훈 우수사원때	영업 과장 유무성 상공회의소 회장상
주임 이상훈 우수사원때	구평공장 대리 김지훈 우수사원때	설계7팀 사원 김성용 우수사원때		1공장 팀장 장세열 상공회의소 회장상
주임 박희순 우수사원때	팀장 박춘복 우수사원때	영암공장 부장 최경식 우수사원때		
사원 김대관 우수사원때	설계5팀 대리 윤치호 우수사원때	대리 이경화 우수사원때		
2공장 대리 권영식 우수사원때	설계6팀 계장 유시욱 우수사원때	사원 김충명 우수사원때		
팀장 김충민 우수사원때	영도공장 사원 이정훈 우수사원때			
로 힘 우수사원때	사원 조연주 우수사원때			
3공장 대리 장기봉 우수사원때	차재조달 대리 김동관 우수사원때			
선임팀장 박재용 우수사원때	총무안전팀 계장 전만석 우수사원때			
사원 김임근 우수사원때	해양설계 계장 김도훈 우수사원때			
기술연구소 대리 김동관 우수사원때				
사원 이영우 우수사원때				
설계1팀 계장 정금영 우수사원때				
설계2팀 사원 김현진 우수사원때				
설계4팀 계장 이현우 우수사원때				
설계8팀 대리 오영석 우수사원때				
차재조달 계장 정성욱 우수사원때				
재무인사 사원 김광수 우수사원때				
품질보증부 사원 이지영 우수사원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선보인에게 불가능은 없다! 극기훈련 프로그램 해병대 캠프 열려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7일 진급자와 2011년 입사자를 대상으로 극기훈련 프로그램인 ‘해병대 캠프’를 진행했다. 경주 국민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62명의 직원이 참가했다.

제식훈련으로 시작해 유격훈련, 지옥훈련(한계극복훈련) 등으로 이어진 훈련은 밤늦게 까지 계속되었다. 한여름 무더위에서도 극기 프로그램답게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극한의 상황을 체험하며 어려운 훈련을 소화해내는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해병대 캠프에는 최금식 대표이사과 과총괄 부사장, 이청수 이사 등 임원들도 직접 훈련에 참가하여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으며 최금식 대표이사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는 구호로 훈련으로 지친 캠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과총괄 부사장은 뒤풀이 사회로 분위기를 이끌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지영 차장과 이순복 대리 등 여직원 2명은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훈련을 이겨내 찬사를 받았다. 또 이번 캠프비대상자인 영업부 박원석 부장은 자원하여 캠프에 참가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름철 산업재해 주범 「질식재해」

질식재해 발생원인과 건강재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의 맨홀, 오폐수처리장, 저장 탱크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망 사고가 급증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의 발생원인과 건강재해에 대해 알아보자.

여름철 밀폐공간 주의해야*

밀폐 공간은 자연 상태에서 환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기물 부패 등으로 산소 결핍과 질식사망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질식재해는 여름철(6~8월)에 집중해서 발생한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미생물이 단시간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 음식물 수거 시설, 케이블 맨홀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노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기에 관리자나 작업자 모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밀폐공간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질식재해 어디서, 왜 일어날까?*

밀폐 공간 질식재해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저장용 탱크 등 소재 자체의 산화, 저장 또는 운반물질의 산화, 건설유의 산패 등은 공기 중의 산소를 빠르게 감소시키므로 그 내부에서 청소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는 산소 결핍증을 일으키

게 된다. 또한, 미생물의 생체 1kg(수분 제외)이 썩는 30도 부근에서 1시간에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은 사람의 몇 배로부터 최고 6,000배까지에 이른다. 이때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도 발생시키며 이런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산소 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각종 탱크나 밀폐된 방냉장실, 냉동실 등 내부 및 지하수에 용존산소가 적을 때 공기 중의 산소를 용해하여 산소 결핍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치환용 가스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재해도 발생한다. 화학공정의 반응탑, 배관 등에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질소 소취환 및 질소 봉입시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다.

또 각종 저장 탱크, 환기가 나쁜 장소에서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아르곤 용접, 절단 작업 및 액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동고 등에도 위험이 있다.

밀폐공간의 건강재해*

산소 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 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인면이 창백하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 강하, 맥박수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며 결국 질식, 사망하게 된다.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 되면 소생은 가망이 없게 된다. 소생한게 내에서 구조된 경우 후유증이 남게되므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 월간안전보건]



산소농도(%)	영향과 증상
15 ~ 19	열성적인 업무능력 감소, 신체조절기능 손상 및 심장·폐·순환기 장애자 초기 증상 유발
12 ~ 14	호흡수·맥박증가, 기증조절·지각·판단력의 손상
10 ~ 12	호흡이 더욱 빠르고 깊어지며 판단력 저하 및 입술 청색증
8 ~ 10	정신혼미, 어지럼증, 의식상실, 인면 창백, 청색입술, 욕지기와 구토
6 ~ 8	4~5분 내 치료로 회복가능 6분 내 50% 치명적 8분 내 100% 치명적
4 ~ 6	40초 내에 혼수상태 경련, 호흡정지, 사망

*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 농도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미만

산업현장의 복병 「폭염」



폭염 시 열사병, 열경련 등으로 중추신경 손상 등 위험

최근 높은 습도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될 경우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열경련과 열사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이같은 고온 현상으로 인한 질병은 크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이 있다. 열경련은 과도한 땀의 배출로 전해질이 고갈되어 발생하는 근육 경련으로 일반적으로 다리 및 복부 경련으로 나타난다. 열탈진은 땀을 과도하게 흘려 체내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의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신체는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두드러져 혼수상태에 이르고 심한 경우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열경련 및 열탈진 환자는 그늘진 곳에서 쉬게 하고 충분히 수분섭취를 시키면 대부분 좋아진다. 그러나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고 찬물이나 물수건, 얼음 등으로 열을 떨어뜨린 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달의 책]

2012년 최고의 인터넷 화제작!

한 발짝 선을 넘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욕망해도 괜찮아**



- 지은이 : 김두식
- 출판사 : 창비
- 312쪽

『헌법의 풍경』, 『불편해도 괜찮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무진 파헤쳐온 김두식의 신작. 이번 책의 주제는 바로 '욕망'! 그가 기준에 퍼냈던 사회과학서나 인문서가 아닌 에세이로, 그동안 법, 인권 같은 어려운 주제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온 저자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흔히 '욕망' 하면 억누르고 감춰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저자는 욕망을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출하고 이해해야 할 삶의 친구로 본다. 욕망을 억압하는 기제, 분출되지 못한 욕망의 부작용과 일탈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대응, 남녀노소 모두 욕망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의 진정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소재와 사회현상, 본인 스스로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중년이 되어 불륜을 저지르는 일탈자가 되거나 욕망을 숨긴 채 희생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되기 십상이다.

저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개인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글이기도 하다.

아이들과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즐기는 시원한 피서

[바다내음 가득한 공간에서 보고 만지며 즐긴다]



국내 최초의 해양종합박물관이자 최대 규모의 해양문화공간인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 영도에서 지나 7월 9일 문을 열었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박물관은 관람객들로 북적이다. 올 여름엔 저렴하고 시원한, 하지만 알차고 재미난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아 무더위를 날려 보내자.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독특한 외관이다. 물방울을 형상화한 건물이다. 2만 5870㎡의 연면적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 박물관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져 있다.

1층에서 관람객들이 처음 만나는 것은 베니치아에서나 보던 곤돌라(베니치아에서 수상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트)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다. 2만 5000여 권의 해양도서를 갖춘 해양도서관도 의미있는 공간이다. 도서관의 통유리 벽 너머로는 부산항 북항의 모습이 눈높이에서 펼쳐진다.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대형 화물선도 바로 앞으로 지나간다.

3층은 해양박물관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직경 10m, 수심 4.8m의 원통형 수족관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다. 머리 위로 가오리가 지나가고 연근해 상어가 헤엄친다. 원통형 수족관에 들어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어른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바쁘다.

해양생물체험 코너에서는 불가사리나 멧게 같은 바다 생물들을 직접 꺼내서 만져볼 수 있다. 전자돋보기로 비추어보면 작은 빨판까지 생생하게 모니터에 떠오른다. 작은 보트를 원격조종해볼 수 있는 코너도 있다. 핸들을 돌리는 대로 수조 위에 뜬 배가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이뿐 아니라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꾸며져 있다.

어른들에게는 전시물 관람도 추천한다. 박물관 측이 가장 먼저 손꼽는 전시물은 세계 최초의 해도첩인 'Dudley 제작 해도첩'이다. 1646년 제작된 초판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곳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다. 해도에는 동해가 한국해 (MARE DI CORAI)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제작된 지구구의와 천구의에서도 동해는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사료를 근거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도 박물관의 자랑이다. 실제 선박을 1/2로 축소했다지만 그 크기가 상당하다.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만 1만점이 넘는다.

4층은 해양산업과 과학, 영토를 주제로 삼았다. 1985년 국내 최초로 남극에 파견됐던 극지탐험대가 썼던 실제 관측 장비도 전시되어 있다. 현재 박물관의 유일한 유료 관람시설인 4D 상영관에서는 입체감 있는 영상을 온 몸으로 즐길 수 있다. 4층에서 바라보는 탁트인 바다는 무더위를 잊게 한다. 오륙도도 눈앞에 성큼 다가온다.

이처럼 국립해양박물관은 눈과 귀, 손끝을 만족시키는 재미로 가득차 있다. 어린이들의 체험교육 현장으로는 완벽하고, 어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도 부족하지 않다.

• www.nmm.go.kr •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 관람문의 : 051. 309.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고객과 함께 승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영광케이지 | 권삼영 대표



영광케이지를 이끌고 있는 권삼영 대표는 화진PF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영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2008년 더 큰 꿈을 안고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그 해 8월 15일 '영광K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피팅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피팅으로 성공하는 것은 곧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명을 영광케이지 (Korea Great)라고 지었습니다.”라는 권대표의 자리에는 경영철학이 담겨 있는 사명서가 붙어있다. “첫째, 항상 고객과 함께 승리하는 길을 택하며 나아간다. 둘째 반드시 이익을 내며, 그 과정은 정직해야 하며, 이익은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영광케이지는 인생의 학교이어야 하며 개인의 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넷째, 인류를 사랑하며,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영

영광케이지(대표 권삼영, 부산 사상구 감전동)는 석유화학플랜트, 발전설비, 조선 등 유추관련 산업의 모든 분야의 산업에 사용되는 관 이음새(피팅)를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다.

광케이지가 된다.”

권대표는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역할을 자처한다. 작년, 우리 회사가 유럽에서 수입한 듀플렉스가 문제가 있어 애를 먹을 때 영광케이지가 참여하며 해결한 일이 있었다. “고객과 함께 윈윈한다.”는 그의 경영 원칙처럼 선보와의 인연도 서로 간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 주며 시작되었다.

“선보공업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업입니다. 언제나 앞을 보며 도전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지요. 선보 최금식 대표이사님은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롯데호텔에서 진행하는 북클럽에서 뵈게 되는데, 전날 외국 출장을 다녀오셔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가하실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랄까 감동하게 됩니다.”

권삼영 대표의 경영철학에는 나눔과 사회환원이 내포되어 있다. 직원들과 함께 기부운동에 동참하고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

에 참여한다.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라 강조하는 권대표는 직원들에게 책 선물을 자주 한다. 그 자신도 독서를 즐긴다. 독서는 삶을 윤택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영광케이지와 권대표의 아름다운 행보와 열정이 더 큰 성공을 예감케 한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영도공장 | 신제협 직장

「선각과 의장작업이 함께 이루어져 최상의 작업능률을 끌어 올립니다」

Q.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인의 권유로 선보와 인연이 되어 2011년도 9월에 입사했습니다. 오는 9월이면 만 1년이 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네요. 그동안 큰 사고 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Q. 하시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PG선에 탑재될 엔진룸에 대한 배관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선행에 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Q. 맡으신 업무에 특별한 점이나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보통은 선각과 의장이 나뉘어져 작업을 하지만 우리 회사는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서로 조율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만큼 작업 성과에도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현장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공정과 납기를 지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없는 현장이 되도록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Q.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는 계속 더 성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작업량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Q. 선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같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다 보니 누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끔 들기도 합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안전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현장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출하준비반 | 최봉순 사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보니 제가 칭찬도 다 받나 봅니다」

Q. 칭찬 릴레이 7월 주자로 뽑히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사실 얼떨떨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야 했습니다.

Q. 언제, 어떤 계기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나요?

2010년 8월에 입사를 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선보공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다음 달이면 입사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네요.

Q. 근무하며 힘든 점이 있다면?

특별히 힘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이 많아지다 보니 바쁘다는 것이 힘든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다른 힘든 점이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서로 협조하여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일을 하며 선보공업에 느낀 점은?

우리 회사는 안팎에서 튼튼한 회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회사를 생각하면 '튼튼하다'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과 복지로 작업에만 신경 쓸 수 있어 좋습니다.

Q. 다음 칭찬 주자를 추천해주세요.

김승우 팀장을 추천합니다. 젊은 분이지만 특유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또 주변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항상 현장을 밝게 만들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2공장	김유미 (7.13)	
설계	최우호 (7.06)	
1공장	김형원 (7.04)	허 준 (7.28)
	허 현 (5.13)	
광진공업	이희중 (7.15)	
부경공업	박영호 (7.15)	김희규 (7.10)
금천산업	조민길 (7.29)	
삼진공업	홍봉걸 (7.24)	권영복 (7.01)
신용공업	강병기 (7.13)	
2공장	권영식 (7.19)	박경규 (7.02)
	윤성재 (7.28)	이진수 (7.09)
	김희찬 (5.12)	한진우 (6.11)
	김준수 (6.13)	
3공장	김충기 (7.21)	
기획	장철민 (7.29)	
자재조달	정현우 (7.23)	
총무안전	전만석 (7.15)	

구평공장

평창산업	추용한 (6.02)	박창선 (7.30)
서경플랜트	홍민섭 (7.15)	김영규 (7.27)
태성산업	김영호 (7.29)	
하림테크	엄태길 (7.17)	김영필 (7.26)
	김영길 (7.02)	

감천공장

해양설계	유시호 (7.30)	김상진 (7.25)
------	------------	------------

영도공장

공장장	이청수 (7.26)
품질보증	백승모 (7.28)
생산관리	김태경 (7.29)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3공장	최광욱 (7.25)	
개발설계팀	박기태 (7.01)	
개발설계팀	김중훈 (7.11)	
구매	손정락 (7.01)	정성욱 (7.01)
	김혜민 (7.03)	
총무	김중신 (7.01)	전만석 (7.01)
품질	박용갑 (7.01)	
설계부	송현범 (7.01)	김우동 (7.11)
	문중현 (7.08)	이순복 (7.09)
	윤치호 (7.09)	나소명 (7.09)
	유시욱 (7.01)	정준영 (7.11)
1공장	심성섭 (7.02)	이경식 (7.03)
2공장	최봉순 (7.01)	

감천공장

해양설계	김도훈 (7.01)
qa	노상우 (7.18)
pm	아미트 (7.01)

영도공장

이청수 (7.01)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